

걸프사태와 현물시장동향

최근 걸프전쟁에 따른 석유현물시장의 가격움직임은 각역 내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반영,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상외로 전쟁기간중 유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美國 걸프만과 유럽의 로테르담현물시장에서는 제품수요 감사로 네트백 가치가 하락한 반면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시장에서는 제품수요 증가로 최고의 정제마진을 기록했다. 1월말 두바이 현물가격이 배럴당 16.15달러였을때 이 원유의 네트백 가치는 美國 걸프만이 19.01달러, 로테르담이 22.27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의 네트백 가치는 29.56달러를 형성, 싱가포르-로테르담간 네트백 가치 스프레드는 7.29달러, 싱가포르-美國 걸프만은 10.55달러를 보여 극동시장의 석유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 주었다.

싱가포르시장

싱가포르시장에서의 높은 제품가격 형성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정제능력의 부족에 기인되고 있으며 여기에 걸프전쟁에 따른 군사용 연료유의 구매가 가세하였기 때문이다. 걸프사태 이후 현물시장에서 韓國을 비롯한 印度, 泰國, 말레이시아등의 대규모 제품구매에 따라 싱가포르 정유공장들은 최고의 가동률을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 강세가 지속, 네트백가치도 상승했다.

걸프사태 기간중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제품가격 강세는 종전의 원유중심의 시장에서 제품시장 중심으로 반전시켰다. 싱가포르의 기록적인 정제마진은 원유가격 하락과 제품가격 상승의 결과이다.

걸프사태에 따라 사우디등에서 군사용 연료유 50만B / D를 수입해갔으며 日本에서도 추가적인 수요증가가 발생했다. 전쟁 기간중 아시아의 정유공장들은 이라크의 공격 사정권내에 있는 사우디와 바레인 소재 120만B / D 상당의 정제시설 손상여부에 관심을 보여 이것이 제품가격 강세를 가져온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정제시설 파괴는 앞으로 동남아지역에 대한 제품교역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양국은 앞으로 상당기간 상당량의 석유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國 걸프만시장

美國의 석유시장은 석유수요의 문화로 제품가격이 하락, 낮은 정제마진을 기록하고 있다. 연료유가격은 전년도 1월가격 21

달러선에서 18달러수준으로 하락했으며, 난방유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두바이 기준 1월중 정제마진은 배럴당 2.34달러를 기록했으나, 이는 가동률 감축(80% 유지)에 따른 것으로 높은 가동률과 함께 높은 정제마진을 기록한 싱가포르시장(8.94달러)과 로테르담시장(5.95달러)과는 사정이 다르다.

美國시장의 초파수요는 주로 역외 구매자에 의해 발생했는데 유럽의 난방유수요, 中東의 제트유수요증가가 그 원인이다. 난방유가격도 이상난동으로 약세가 지속중이다. 발전용 연료유는 천연가스로의 대체성이 높아 가격약세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저유황유는 전력회사들의 구매감소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남아도는 난방유가 극동지역으로 수출되었다. 현재 美國의 제품생산은 전년동기대비 5만B / D가 감소한 수준이다.

로테르담시장

서유럽의 정유회사들도 석유수요증가로 높은 가동률과 정제마진을 기록했다. EC지역의 가동률은 85% 이상이 유지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50만B / D의 추가적인 제품생산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1월중 두바이원유의 정제이윤은 배럴당 5.95달러를 기록했다. EC의 석유제품수요는 12월에 20만B / D가 증가된 973만B / D를 기록한 이후 1월에는 1천만 B / D수준으로 늘어났다.

최근 소련의 산유량 감소에 따라 올해 소련의 석유수출이 150만B / D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가리, 루마니아, 폴란드등 東歐제국의 西유럽에 대한 석유수출도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이는 소련의 東歐에 대한 석유공급의 감축에 기인되고 있다.

향후전망

걸프전쟁 기간중 가스오일 및 제트유등 일부 전쟁관련제품가격이 강세를 유지했으나 걸프전쟁의 종전으로 이들 제품의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급과잉이 심한 유럽지역이 큰 타격을 받음으로써 정제이윤이 負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美國시장은 걸프전쟁 발발 이전부터 석유소비의 자연감소세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종전이 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아시아시장에서도 높게 형성된 제품가격이 완화되어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귀될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정제능력이 부족한데다가 쿠웨이트, 이라크의 정유공장 복구도 앞으로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므로 정제이윤은 당분간 호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에너지동향〉